

## <로고스를 입다-정의란 무엇인가>

### 제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김성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소득의 재분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규제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다. 그들은 각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한다면, 우리 소유물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대국가는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최소의 기능만을 하는 국가이어야 하며, 그 이상을 수행한다면 부도덕한 국가라고 하면서, 현대국가가 실시하는 온정주의 정책(헬멧 착용 의무화 반대), 도덕법(매춘 금지법 반대), 소득과 부의 재분배(세금 반대)를 반대한다.

#### <자유시장 철학>

로버트 노직은 분배 정의를 구현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소유물-다시말해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인가 -에 정의가 구현되어 있어야 하며 또 소유물 이전에도 정의-자발적인 교환-가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내 수입의 일부를 내 놓으라고 할 권리가 있다면, 내시간의 일부를 내 놓으라고 요구할 권리 또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본질적으로 나에게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자유지상주의 자기소유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나는 내 노동도 (온전히)소유해야 하며, 그 열매도 (온전히)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조던이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세금을 물리는 행위는 국가가 조던의 부분적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과세는 국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엄연히 소유한다는 의미라고 노직은 주장한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과세로 인한 소득의 재분에 대한 찬성측과 자유지상주의 의견들

##### 재분배 찬성측

##### 자유지상주의

1.과세는 강제 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국가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가?

일을 덜하고 세금 덜 내는쪽으로 선택 할 수 있다.

2.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세금)이 절 여유로운 사람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실하다.

돕게할 때나 합당하며, 기부금을 강요할 수 없다.

3. 마이클 조던 혼자서는 경기를 할 수 없다. (즉 돈을 혼자서 그만큼 벌 수 없다.) 따라서 조던의 그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빛진 것이다

동료들은 이미 그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시장 가치를 받았다.

4. 조던은 부과된 세금에 동의 했으며, 민주 시민으로써 조세법 제정에 (반대 또는 감액)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어쨌든 법을 따라야 한다

다수결에 따라 제정되었고,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 또는 자유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5. 조던은 행운아다.

재능을 연마해서 자기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조던의 농구 능력을 포상해주는 사회에서 자랐다. 그러기에 수입에 세금을 매겨 공익을 위해 쓴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꽤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권리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사람에게와 자유방임 경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자기 소유 개념에 의지한다. 또한 자유지상주의 이론이 복지정책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호소력을 갖는다.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많은 논쟁에 등장한다. 내가 내 몸, 내 삶, 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룰 자유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 생각은 꽤 설득력이 있지만 그 의미를 모두 받아 들이기란 쉽지 않다. 그 예를 살펴보자.

- ① 콩팥판매-장기 이식 목적이 아니라 매매의 대상으로 삼고 잡담거리로 여기는 미술상, 아이 학비를 위해서 장기를 파는 농부 이야기 - 장기 이식을 특정한 경우에만 한다고 법으로 제한 한다면 자기 소유의 원칙과 거리가 멀다.
- ② 안락사 - 안락사를 선택하는 대부분은 생명의 자기 결정권을 앞세운 자유지상주의(자기 소유권 주장)견해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연민을 위해서 선택
- ③ 합의하여 이루어진 식인 행위 - 자유지상주의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했다.

< 팀켈러 - 정의란 무엇인가? >

제3장 예수님의 삶을 잊었는가?

내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는 힘든 그녀에게 그녀가 빚을 갚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랑(금전적 지원)을 베풀었지만 그녀는 자녀들의 식사와 자전거 등을 사주는 것으로 소모해 버렸다. 교회 집사들은 그녀의 무책임과 무절제를 보고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의 생각은 궁핍하게 사는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는 해당되는 얘기이며, 현대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안데스 니그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과 공의는 상호 배타적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섞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사랑과 관용을 토대로 공의를 누르고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람들의 바르고 반듯한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예수님과 약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를 추구하는 구약의 정신에 조금도 손대지 않았으며 즉 계속 공의를 말씀하시고 구약과 마찬가지로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셨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과 함께 하셨다. 사회의 통념도 깨뜨렸으며 사회 각계 각층을 두 팔 벌려 맞아 주심으로써 참다운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눅 14:12~14절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의무’에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14장 후반부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이들에게 집을 개방하고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다. 또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재물을 더 많이 쓰라고 말씀하신다. 상부상조의 시스템에서는 공휴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을 돕는 동기는 정의감과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고자 하는 진실한 진심이 전부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눅 12:33절과 눅 18:22절에서는 재물을 자기 소유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가난한 이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아낌없이 나눠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적인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며 성경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힘없는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들을 고발하고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모독하는 행위라고 결론 짓는다.

정의감이 부족하다는 건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증표이며, 종교적인 규정들만 잘 지키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충족시킬 뿐이다.

예수님은 겉으로 들어나는 종교적 규율에는 지나치리만큼 집착하면서도 이면에서 취약계층을 냉담하며 외면하며 살아온 서기관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증거하였으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른바 독실한 신앙인들이지만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 했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영혼의 나침반인 마음에 이상이 생겼음을 아려주는 지표이며 처방으로는 구제를 제시하였다.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역사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가난한자, 나그네, 집으로 기꺼이 맞아들이고 더불어 살고, 혈벗은 이에게는 옷을 입혀주어야 하며 아픈자들은 종합적으로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는 찾아가 위로와 격려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영생을 얻었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지녔다는 증표라는 것이다.

#### <온전한 옷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개인적 도덕률과 사회적 정의를 둘 다 말씀하였으나, 정당과 교회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설교에서는 하나만을 강조 한다. 씨줄과 날줄로 엮인 온전한 옷감이 아닌 것이다.

#### <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초대교회>

바울은 ‘예수님은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였다. 그렇다.

모세 율법 조항 가운데 상당부분은 나날이 커지는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걸 목표로 삼고 있으며(예: 희년, 만나, 균등), 야고보서에서는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쓰는 이들을 더할 나위 없이 준엄하게 나무라는 대목이 곳곳에 등장한다. (약5:1~6)

#### < 진정한 코이노니아 >

구약은 영구적인 빈곤이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 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신약은 예루살렘교회의 ‘매일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았다.

구제는 먼저는 가난한 신자들을 향하되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